

국제해양정세리포트

No.30

2024/9

발행인 김종덕 | 총괄 박수진 | 감수 최지연 | 담당 이서희·황수연

Email dokdo.oceanlaw@kmi.re.kr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문의 독도·해양규범연구실(051-797-4707)

Contents

국제기구/ 국제규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2
UNFCCC 필리핀, '손실 및 피해 대응 기금' 이사회 주최국으로 선정

세계식량농업기구(FAO) 4
FAO 유엔기후변화협약 체제의 수산식품 분야 가이드

지역별 동향

아시아 8
중국 남중국해에서 활동하는 中 해경·해군·해상민병 선박 증가

아메리카 11
미국 美 해군,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선박 호위 가능성 시사
바베이도스 바베이도스 '자연-부채 스왑(Swap)' 체결 예정

유럽 15
노르웨이 노르웨이, 스발바르 백서(2023-2024) 발표

아프리카 18
아프리카의 불 아프리카의 불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 고조에 따른 주변국의 대응 동향

행사안내

3개월 내 행사 계획 2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국제해양정세리포트는 최신 글로벌 동향을 소개하는 월간지로 이메일로 배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051-797-4707) 또는 이메일(dokdo.oceanlaw@kmi.re.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전문연구원 정현욱

필리핀, '손실 및 피해 대응 기금' 이사회 주최국으로 선정

7월 9~12일에 인천 송도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손실 및 피해 대응 기금 이사회(Board of the Fund for responding to Loss and Damage)' 제2차 회의에서 필리핀이 이사회 주최국으로 선정되었다. '손실 및 피해 대응 기금'은 개도국 등 취약 국가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비경제적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원으로, 2023년에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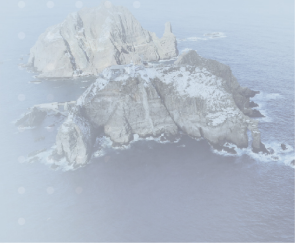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그림 1. UNFCCC 손실 및 피해 대응 기금위원회



그림 출처: UNFCCC(2024.7.12.)

'손실 및 피해 대응 기금 이사회'는 UNFCCC 당사국에서 선출된 총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12명은 선진국 국적의 위원이고 14명은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소규모 섬 개도국, △최빈개발국, △지역 그룹 및 선거구에 포함되지 않은 개도국 출신이다. 12개 선진국에는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유럽연합(EU),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이사회 주최국이 된 필리핀은 아시아 태평양의 이사회 회원국이다.

필리핀이 '손실 및 피해 대응 기금' 이사회 주최국으로 선정됨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이후 기금의 임시 수탁기구인 세계은행과 협상을 진행하고,



‘금융중개기금(financial intermediary fund)’을 운영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 기금의 사무국 또한 필리핀에 설립된다. 이에 대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국제 기후정책의 미래를 형성하도록 우리의 리더십과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은 이번 이사국 유치를 위해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 아래 환경 및 천연자원부(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가 주도하고, 외무부·재무부·예산 및 관리부·기후변화위원회·법무부·국가경제개발청이 지원하는 범부처적 협력을 추진했다. UNFCCC 측에 따르면 필리핀 이외에 안티구아 앤 바부다, 아르메니아, 바하마, 바베이도스, 에스와티니, 케냐, 토고 정부도 2024년 5월에 위원회 유치국을 신청했으나, 필리핀이 최종 선정되었다.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는 이번 제2차 이사회에서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에 700만 달러를 신규로 출연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7월 말까지 19개국이 ‘손실과 피해 기금’에 총 7억 9,200만 달러를 출연할 계획을 밝힌 상태다. 국제사회에서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기금에서 우리나라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후기금’에 대한 관심과 기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전환을 위한 우리나라의 지식과 기술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증대되어야 한다.

출처 : [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7.9.), 손실과 피해 기금과 녹색기후기금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 <https://www.ctis.re.kr/ko/downloadBbsFile.do?atchmfnfNo=11034>

[2]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Republic of the Philippines(2024.7.10.), The Philippines wins bid to host the loss and damage fund board, <https://denr.gov.ph/news-events/the-philippines-wins-bid-to-host-the-loss-and-damage-fund-board/>

[3] UNFCCC, Fund for responding to Loss and Damage, <https://unfccc.int/loss-and-damage-fund-joint-interim-secretariat#Board>

[4] UNFCCC(2024.7.12.), Philippines Selected to Host the Board of the Fund for Responding to Loss and Damage, <https://unfccc.int/news/philippines-selected-to-host-the-board-of-the-fund-for-responding-to-loss-and-damage>

[5] UNFCCC(2024.7.12.), Second Meeting of the Board of the Fund for responding to loss and damage, <https://unfccc.int/event/second-meeting-of-the-board-of-the-fund-for-responding-to-loss-and-damage>



세계식량농업기구

FAO

전문연구원 황수연

유엔기후변화협약 체제의 수산식품 분야 가이드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유엔기후변화협약 체제의 수산식품 분야 가이드(이하 가이드)'는 기후포럼을 통한 수산식품 부문의 공정한 경쟁 환경 보장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농수산식품 시스템에 대한 기여 및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 가이드에서는 수산식품 부문 이해관계자에게 유엔기후변화협약(이하 UNFCCC) 체제 하 관련 기구 및 프로세스 상에서 수산식품 부문의 실질적인 진입지점(practical entry points)을 식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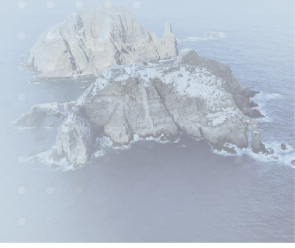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다만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진입지점은 예시적인 성격이지만 다양한 국가와 이해관계자 그룹이 장기적인 협상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면 UNFCCC 내에서 수산식품 분야의 협상 계획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협상 우선순위와 특정 문제에 대한 합의 도달 과정에 자원 배정, 이해관계자 및 부문 간 효율적 협력을 위한 협력체 구성, 역량 구축 필요성 평가, 전략적인 실질적인 진입지점, 협의 및 정보 교환을 위한 전략 구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표 1. 수산식품 부문과 관련된 UNFCCC 활동

연도	주요 활동
2009	- (UNFCCC COP15) 당사국회의 그린존1)(시민사회 영역)에서 첫 '바다의 날(Ocean Day)' 개최
2014	- (IPCC) 5차 평가보고서(AR5)에서 2개의 장(해양, 해양 시스템) 작성에 참여
2015	- (UNFCCC COP21 파리협정) 기후변화와 식량 생산 사이 연관성 인식
2016	- (UNFCCC COP22) '바다의 날(Ocean Day)'을 블루존(협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편입
2019	- (IPCC) 해양 및 빙권에 관한 특별 보고서(SROCC)에 발간 - (UNFCCC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 해양 전문가 그룹 설치 - (UNFCCC COP25) Blue COP 및 최초의 '해양 대화(Ocean Dialogue)' 의무화
2020	- (글로벌 기후 행동을 위한 UNFCCC 마라케시 파트너십) 해양 및 해안 지역 기후 행동 경로 발표 - (UNFCCC SBSTA2)52) 최초의 '해양 대화(Ocean Dialogue)' 조직
2021	- (UNFCCC COP26) '해양 대화(Ocean Dialogue)' 매년 의무 실시 - (2021-2023 IPCC) 6차 평가 보고서(AR6)에서 바다에 대한 양호한 범위 유지
2023	- (UNFCCC SBSTA58) 연례 해양 대화(Ocean Dialogue) 심층 토론 주제에 '어업과 식량 안보' 포함 - (UNFCCC COP28) UNFCCC 하 수산물 논의 강화되고 담수 시스템에 대한 논의 시작

표
출처:FAO
자료
참고
작성

1) 당사국회의장 중 협상을 위한 전체 회의, 비공식회의, 조정 회의, 양자 회담, 사무국 주최 행사, 워크숍 등 협약 협상을 위한 공간을 '블루존(blue Zone)'이라 칭하고,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의



보고서는 UNFCCC 내 수산식품 관련한 4가지 상호 고려 사항으로 ① 수산물 부문의 중요성과 기후변화 영향의 높은 취약성에 대한 인식, ②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있어 수산물 부문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인식, ③ UNFCCC 협상 시 수산식품 부분을 고려, ④ 수산물 부문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이에 적응하는 메커니즘과 도구의 필요성은 UNFCCC 산하의 모든 관련 작업 프로그램과 구성 기관에서 포괄적인 주제로 고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수산식품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수산식품과 관련된 요구 사항과 해결 방안을 UNFCCC 협상 과정 및 다양한 기관의 관련 작업에 통합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다양한 잠재적 채널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UNFCCC 하에서 수산물 부문의 주요 진입지점으로 연례 해양 대화(Ocean Dialogues)에서 수산식품 부문에서 비롯한 기후 솔루션을 계속해서 논의한다.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NWP: the Nairobi work programme) 해양 전문가 그룹에 수산식품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해당 그룹에서 수산식품에 대해 보다 폭넓게 논의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해양 및 연안 지역에 대한 마라케시 파트너십 주제 그룹의 업무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산식품 부문 내외의 비국가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더욱 강력한 협력과 파트너십을 육성할 수 있다.

농업 및 식량 안보 관련 기후 행동 이행에 관한 샤름 엘 셰이크 공동 작업 내에서 향후 논의 주제로 수산식품 시스템을 통합할 가능성을 모색한다. 또한 당사국들이 수산식품과 관련된 적응 조치 및 활동을 국가 결정 기여(NDC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국가 적응 계획(NAPs: National adaptation plans) 및 적응 커뮤니케이션(adcom: adaptation communication)과 같은 당사국 주도의 기후 도구에 통합하도록 장려한다. 적응 위원회(AC: Adaptation Committee)와는 적응 정책 옵션에 대한 기술 문서 시리즈, 적응 재정 게시판, 연례 적응 포럼 및 적응 관련 연례 적응 대화에 수산식품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완화, 시장 및 비시장 메커니즘에서 탄소 격리, 블루 카본 생태계 또는 자연 기반 솔루션(NbS: nature-based solutions)에 기여할 수산식품 시스템의 경로를 탐색하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기타 지역 행위자가 적응을 위한 기후금융 및 기타 지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부대행사를 개최하는 곳을 '그린존(Green Zone)'라 칭한다.

2)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녹색 기후 기금(GCF: Green Climate Fund)과 같은 주요 기후재정 자원 접근을 위해 수산식품 부문 전반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진단하여 수산 식품 부문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기후재정 자원 조달 제안의 정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후 기술 부문에서 국가의 기술 수요 평가(TNA: technology needs assessment) 기술 실행 계획에서 수산물 부문에 대한 기후 기술 우선순위를 고려하도록 장려한다.

표 2. UNFCCC 체제 하 수산식품 부문을 통합하기 위한 실질적인 진입지점 예시

기관 및 절차	실질적인 진입지점 예시
적응과 탄력성	- 국가 결정 기여(NDC), 국가 적응 계획(NAP), 적응 커뮤니케이션(adcom) - 적응 위원회(AC) - 최빈국 전문가 그룹(LEG) - 지구 기후 탄력성을 위한 UAE 프레임워크 - 글로벌 적응 목표에 관한 글래스고-샤름 엘 셰이크 작업 프로그램 - UAE-Belém Work 프로그램 -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의 적응 지식 포털(NWP)
해양	- 연례 해양 대화(Ocean Dialogues) - NWP 전문가 그룹 - 해양 및 해안 지역에 대한 마라케시 파트너십 주제 그룹
농업과 식품 보안	- 샤름 엘 셰이크 공동 작업 - 기후이행에 관한 농업과 식량에 대한 조치
전 지구적 이행 점검(GST)	-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격년 보고서(BR), 격년 업데이트 보고서(BUR), 국가 커뮤니케이션(NC), adcom, NDC 및 NAP - 연례 전 지구적 이행 점검(GST) 대화
완화 및 시장/비시장 메커니즘	- NDC(국가 결정 기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 2013년 IPCC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지침에 대한 보충 자료 - 탄소 격리 및 완화 금융의 형평성
손실 및 손해	- 바르샤바 인터내셔널 집행위원회(ExCom) - 손실 및 피해 기금 - 산티아고 네트워크
기후 금융	- 국가 정책 및 우선순위 - GCF, GEF, SCCF, LDCF, 적응 기금, 손실 및 피해 기금 - 기후재정에 관한 새로운 집단 정량화 목표(NCQG) - 재정 상임위원회 -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
기후 기술	- 기술 임원 위원회(TEC)와 기후 기술센터 및 네트워크(CTCN) - 기술 요구사항 평가(TNA) 및 기술 실행 계획(TAP)
과학과 혁신	- 정부 간 패널 기후변화(IPCC) - 연례 연구 대화 - UN 기후변화 글로벌 혁신 허브(UGIH)
역량 강화	- 파리 역량 강화 위원회(PCCB)
전환, LCIPP, 성별, 교육 및 청소년	- Just Transition Pathways 작업 프로그램 - 공동 접촉 그룹 및 연례 고위급 장관 라운드 테이블 - 지역사회 및 원주민 플랫폼(LCIPP)의 촉진 실무 그룹 (FWG) - GAP 및 ACE 실행 계획 - 원주민에 대한 글로벌 허브 식량 시스템

표
출처:FAO
자료
참고
작성



그 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및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수생 생태계 및 수산식품 가치사슬에 대한 온실가스 지침 개발 및 업데이트, 기후정책 및 조치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수산물 부문 예측 등 수산물 부문을 다루는 기후 지식 기반을 강화하고 기후정책 결정 및 실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 외 국제 및 국가별 기후정책의 수립 및 이행 프로세스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워크숍 등 지역사회 및 원주민 플랫폼(LCIPP: Local Communities and Indigenous Peoples Platform)의 촉진 실무 그룹(FWG: Facilitative Working Group)을 통해 소규모 어업 및 양식업 공동체를 포함한 어촌 사회 및 원주민의 기후 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정책적 시사점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은 합의 기반 규칙 제정, 표준 및 관행 제정, 기후재정 및 역량 강화 촉진 등을 수행하는 다양한 관련 기관을 통해 이행된다. 국제기후 규범의 이행을 위한 합의 도출 과정이 복잡한 점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기후 법안 제정, 시행계획 수립 등 정책 시행 시 국내 수산 및 양식업 관련 민간기업, 어업인 및 양식업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정보 제공하고 우리 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출처 : [1] FAO, 「Navigating the waters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 guide for the aquatic food sector」 2024, <https://openknowledge.fao.org/items/d417b809-d019-4b60-8670-c45c1890d23b>



아시아

중국

전문연구원 정 현 욱

남중국해에서 활동하는 中 해경·해군·해상민병 선박 증가

최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해역에서 활동하는 중국 해경 및 해군 함정과 해상민병으로 추정되는 선박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스프래틀리 군도에 위치한 사비나 사주(Sabina Shoal) 주변 해역으로, 중국에서는 셴빈자오(仙賓礁), 필리핀에서는 에스코다 사주(Escoda Shoal)으로 지칭되는 곳이다.

필리핀 해군의 주간 모니터링에 따르면, 8월 13~19일에 총 129척에 달하는 중국 해경, 해군, 민병 선박이 사비나 사주 주변 해역에서 활동했고, 20~27일에는 그보다 더 늘어난 163척이 운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8월 28일~9월 3일에는 203척으로 더욱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 주간 중국 선박 수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8월에 사비나 사주 주변 해역에서 중국과 필리핀 선박의 충돌이 몇 차례 발생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비나 사주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있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국의 해양 영토라고 주장한다. 중국과 필리핀 선박이 충돌한 8월 25일에도 중국 해경은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셴빈자오 주변 해역을 불법 침입한 필리핀 선박 3002호에 대해 중국 해경이 법에 따라 통제 조치를 취했다”라고 발표했다.

사비나 사주, 중국·필리핀 간 새로운 화약고로 긴장 고조

사비나 사주는 중국과 필리핀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해상수송과 해양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곳일 뿐만 아니라 어업자원이 풍부하고 해저에 대량의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중국과 필리핀 등의 전력 투사(projection of power)에 이상적인 위치에 있어 양국 간 해양영토 분쟁의 다음 ‘화약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주에 대한 지배권은 국제적으로도 지정학적·지경학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남중국해 상의 전략적 요충지 중 하나로 꼽힌다.



그림 2.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



그림 출처: 연합뉴스(2024.8.25.)

특히, 필리핀은 자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세컨드 토마스 사주(Second Thomas Shoal)에서 약 35해리 떨어져 있는 사비나 사주를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활동하는 자국 해군 보급을 위해 중요한 기지로 구축하려고 한다. 필리핀은 최근 중국이 사비나 사주에서 불법적으로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합동 순찰을 진행하는 등 군사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필리핀은 2024년 4월부터 최첨단 해안 경비대 선박 중 하나인 BRP 테레사 마그바누아(BRP Teresa Magbanua)를 사비나 사주 인근 해역에 배치해 중국의 불법 매립 활동을 감시했고, 중국도 이에 맞대응해 12,000톤급 대형 해경 함정을 배치하며 대치하면서 이 사주 주변에서 양국 갈등이 고조되었다.

중국은 자국의 인공섬 건설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으며, 오히려 필리핀이 사비나 사주 주변에 불법적으로 좌초시킨 선박으로 인해 이 해역의 산호초 생태계가 파괴되었다고 반박한다. 중국의 해경 함정뿐만 아니라 해군과 해상민병으로 추정되는 기타 선박의 출현도 급증하면서 필리핀을 비롯한 주변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변국들



은 중국이 이미 스카버러 사주(Scarborough Shoal, 중국명 황옌다오, 필리핀명 파나타그 솔) 등 스프래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중국명 서사군도, 베트남명 호앙사 군도)에서 여러 개의 인공섬을 건설해 실효적 지배를 시도한 사례가 사비나 사주에서도 재현될지 우려하고 있다. 필리핀 해군은 중국이 필리핀의 EEZ를 포함한 남중국해에서 이미 약 3,000헥타르를 매립했다고 밝혔다.

그림 3. 중국 해경의 12,000톤급 대형 함정



그림 출처:
INQUIRER.NET(2024.8.26.)

- 출처 : [1] 연합뉴스(2024.8.25.), 중국·필리핀 선박 엿새 만에 또 충돌, <https://www.khan.co.kr/world/china/article/202408251901001>
- [2] INQUIRER.NET(2024.8.26.), China Coast Guard's 'monster ship' expected to return to Sabina Shoal, <https://www.inquirer.net/411227/monster-ship-seen-to-return-to-sabina-expert/>
- [3] rfa(2024.8.6.), To guard against Chinese buildup, Philippines will not leave Sabina Shoal, <https://www.rfa.org/english/news/southchinasea/philippines-sabina-shoal-08062024041810.html>
- [4] Reuters(2024.8.30.), China says no scientific, factual basis for Philippines' damage claims at Sabina Shoal,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china-publishes-first-survey-report-disputed-south-china-seas-sabina-shoal-2024-08-30/>
- [5] South China Morning Post(2024.8.21.), Why has Sabina Shoal become a China-Philippines flashpoint?,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275354/why-has-sabina-shoal-become-china-philippine-flashpoint>



아메리카

미국

전문연구원 정 현 욱

美 해군,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선박 호위 가능성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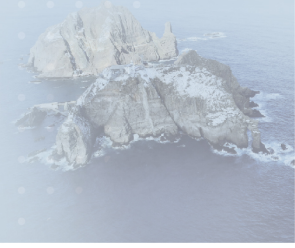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중국과 필리핀 해경 함정이 최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의 사비나 사주에서 여러 차례 충돌한 가운데, 미국은 필리핀 선박이 위협에 처할 시 미군이 호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사무엘 파파로(Samuel Paparo) 사령관은 8월 27일 필리핀에서 열린 '제35회 국제 군사법 및 작전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협의를 전제로 필리핀의 남중국해 해군기지에 식량과 물자를 전달하는 필리핀 선박을 미군이 호위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이 미국과 필리핀의 '상호방위조약'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테오도로(Teodoro) 필리핀 국방장관 또한 미국과 필리핀 간 상호방위조약이 더 '역동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개입이 늘어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림 4. 남중국해의 사비나 사주 위치



그림 출처: The Economist(2024.9.10.)

사비나 사주는 중국과 필리핀의 세 번째 분쟁 가능 지역으로 거론될 정도로 최근 몇 달 동안 양국의 충돌이 빈번히 발생한 남중국해의 모래톱 지형물이다. 지난해에는 세컨드 토마스 솔(Second Thomas Shoal)에서 중국 해경 선박이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쏘는 일이 몇 차례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사비나 사주를 둘러싼 양국의 마찰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 해경의



발표와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8월 19일, 25일, 26일, 31일에 연이어 사비나 사주 인근에서 중국과 필리핀이 마찰을 빚었다. 19일에는 양국의 선박이 직접 충돌하기도 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2016년 중재 판정에 따르면, 사비나 사주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있지만,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 내에 위치하기도 한다. 중국은 역사적 권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PCA는 9단선의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필리핀은 중국이 사비나 사주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기 위해 산호 파편으로 매립하고 있으며, 이로써 산호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국은 과학적,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고, 필리핀 함정이 해당 지역에 불법적으로 좌초해 산호초 생태계가 파괴되었다고 반박한다.

중국·필리핀 간 해양영토 분쟁을 둘러싼 미중 마찰 격화

한편, 미국과 필리핀 간 상호방위조약은 1951년 8월 체결되었으며, 필리핀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오랜 동맹국이다. 미국은 그동안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필리핀에 대한 타국의 위협에 함께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며, 중국이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중국은 이에 대해 미국이야말로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를 가장 크게 방해하는 세력이며, 필리핀 선박에 대한 경고, 감시, 통제 지시는 자국의 합법적인 해상 법 집행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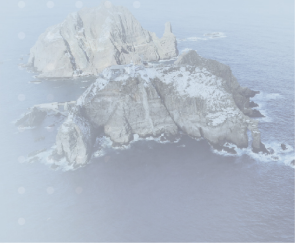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출처 : [1] philstar(2024.8.28.), Philippines calls for 'more dynamic' pact with US to counter China, <https://www.philstar.com/headlines/2024/08/28/2381162/philippines-calls-more-dynamic-pact-us-counter-china>

[2] Reuters(2024.8.30.), China says no scientific, factual basis for Philippines' damage claims at Sabina Shoal,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china-publishes-first-survey-report-disputed-south-china-seas-sabina-shoal-2024-08-30/>

[3] South China Morning Post(2024.8.27.), South China Sea: US condemns 'aggressive' Chinese actions, 'stands with' the Philippines, <https://www.scmp.com/news/china/military/article/3276088/south-china-sea-us-condemns-aggressive-chinese-actions-stands-philippines>

[4] The Economist(2024.9.10.), The scary new map of the South China Sea, <https://www.economist.com/asia/2024/09/10/the-scary-new-map-of-the-south-china-sea>

[5] 环球时报(2024.9.2.), 撤船撤人是菲律宾在仙宾礁的唯一选择, <https://baijiahao.baidu.com/s?id=1809010681110896623&wfr=spider&for=pc>



아메리카 카리브해

전문연구원 황수연

바베이도스 '자연-부채 스와프(Swap)' 체결 예정

자연-부채 스와프(DNS: Debt for nature swap)³⁾는 개발도상국에서 자연 보호를 위해 재정을 지출할 경우 해당국의 채권을 매입하고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이 보증을 제공하는 글로벌 금융상품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지난 8월 카리브해의 섬나라 바베이도스의 국가 채무를 탕감해 주는 대신 자연 보호를 위해 재정을 지출하도록 하는 자연-부채 스와프(이하 DNS) 체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바베이도스와 유럽투자은행(EIB) 및 미주개발은행(IDB)은 DNS를 위해 각각 1억 5,000만 달러, 총 3억 달러(약 4,154억 원)의 보증을 확정하였으며, DNS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바베이도스의 하수 처리 시설 개선에 쓰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카리브해로 유입되는 오염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베이도스는 이미 2022년 9월에 해양 환경 보호 및 해양 관광 확대를 위한 해변 정화 사업을 위한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DNS를 체결한 바 있다.

그림 5. 자연-부채 스와프(DNS) 계약 체결 모식도



그림 출처: IIGF(International Institute of Green Finance) 2021

2021년과 2022년 벨리즈 등 카리브해 국가와 2023년 중남미 에콰도르, 아프리카 가봉 등도 DNS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최근 체결된 DNS 사례로

3) 스와프(swap)는 계약조건 등에 따라 일정 시점에 자금흐름의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금융 기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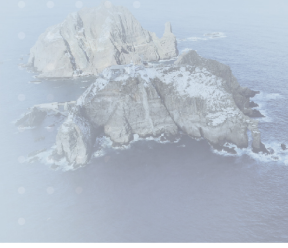


에콰도르는 2024년 4월에 미주개발은행(IDB) 및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와 아마존과 갈라파고스 보호를 위한 DNS를 신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또한 5월에 에콰도르 정부는 기후 금융 그룹인 오션스 파이낸스 기업(Oceans Finance Company)과 갈라파고스 제도 해양 플라스틱 제거 및 맹그로브 복원을 위해 총 10억 달러의 환경 프로젝트 자금 모금 계획을 밝혔다. 6월에는 바하마에 미주개발은행(IDB)은 총 5억 달러의 신용보증을 제공할 것이며 DNS를 통해 카리브해의 해양 공원과 해양 보호 구역 네트워크를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책적 시사점

자연-부채 스와프(DNS)가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장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의 국제 이자 부담 경감 및 해양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경제 발전 등 희망을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DNS가 실제 해양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또한 나라 재정·환경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외국 기관에 주어 준다는 주권 침해 논란, DNS가 기후변화나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란 지적도 많다. DNS가 실제 해양환경 개선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DNS 계약 당사국 간 해양 환경 보호 이행 및 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출처 : [1] 에콰도르 사례(2024.4.23.)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ecuador-examining-new-amazon-ocean-linked-debt-for-nature-swaps-sources-say-2024-04-23/>
 [2] 갈라파고스 사례(2024.5.21.)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galapagos-protection-plan-targets-new-type-1-billion-debt-deal-2024-05-21/>
 [3] 바하마 사례(2024.6.28.)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bahamas-readies-caribbeans-next-debt-for-nature-swap-2024-06-28>
 [4] 바베이도스 사례(2024.7.25.)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sustainable-finance-reporting/barbados-debt-for-climate-swap-nears-eib-idb-finalise-guarantees-2024-07-25/>



유럽

노르웨이

전문연구원 김 지 혜

노르웨이, 스발바르 백서(2023-2024)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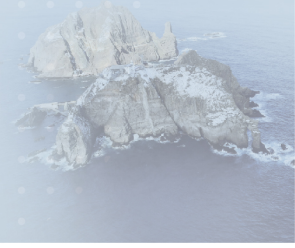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지난 5월 노르웨이가 새로운 스발바르 백서를 발표했다. 이번 백서는 지난 2016년 백서 발표 이후 변화된 스발바르의 상황을 반영하였다. 특히, 스발바르 광업 쇠퇴, 관광 등 경제활동의 증가,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영향 등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전반적인 구조는 2016년 백서와 달라진 것은 없지만, 새로운 백서는 스발바르의 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 공급, 연구, 교육, 관광, 환경 및 안보와 같은 분야에서 더 강력한 국가 통제를 요구하는 일련의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그림 6. 스발바르



사진 출처: BBC

기후변화는 스발바르의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스발바르에는 총 67개의 외래종이 확인됨에 따라 침입외래종에 대한 행동계획이 마련되었다. 노르웨이 극지연구소가 스발바르 외래종에 대한 데이터 관리



와 추가적인 조치 필요성을 평가하는 임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스발바르 주지사는 2024년까지 수확가능한 자원 관리를 위한 종합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스발바르 정책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평화와 안보는 유지하는 것이며, 백서는 스발바르 조약을 근거로 스발바르에서 일관되고 확고한 주권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최근 역내 지정학적 갈등 심화에 따라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제시하고 있다. 스발바르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권을 행사하는 방안 중 하나로 토지 소유권이며, 현재 노르웨이 정부가 스발바르 내 토지의 약 98.75%를 소유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무역수산부가 롱이어비엔 공간 계획구역을 포함한 스발바르 내 국유지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

오랫동안 스발바르의 주요 산업이었던 석탄 채굴 산업이 쇠퇴하면서 2016년부터는 노르웨이와 러시아의 석탄 생산량이 모두 연간 10만 톤 이하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스발바르 노르웨이 정착지의 고용 현황은 광업에서 기타 산업으로 다변화되었다. 특히 관광산업이 성장하면서 환경규제와 상충이 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스발바르의 관광전략은 단순 관광객 유입에서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접근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편 백서에서는 스발바르의 인구 구성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는데, 롱이어비엔이 평생 거주하는 지역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칙이 확고히 자리 잡혀있으며, 이 지역사회가 현재 수준을 넘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스발바르의 인구는 상당히 증가했으며, 특히 롱이어비엔의 인구는 1990년 1,125명에서 2024년 2,600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지난 15년 동안 스발바르 노르웨이 정착지 인구는 외국인 거주자에 의해 증가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노르웨이 가족들의 스발바르 이주를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노르웨이 당국은 스발바르에서 국제극지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뉘올레순을 연구 플랫폼으로 발전시켰다. 백서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부는 스발바르연구사무소를 설립하여 연구지원과 연구활동에 대한 국가 감독 기능을 강화시키고 스발바르에서의 연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16년 발간되었던 백서의 연장선상에서 2024년 백서에서도 노르웨이 정부는 주로 모든 연구가 기존 지역사회와 연구소에 기반을 두기를 원하고 있으며, 계획 구역 밖에 새로운 연구기지의 구축 또는 대규모 및 상설 연구 인프라를 설치에 대한 허가를 기대할 수 없다고 명시하



고 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 노르웨이 정부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주된 우려사항인 것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지정학적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 등의 국가들이 스발바르에서 극지연구를 확대하고 기지를 신설하는 계획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나, 노르웨이를 포함한 NATO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북극 확장정책을 견제하는 입장이며, 과학 활동이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스발바르에서의 과학 활동을 규제하려 하고 있다.

2024년 백서는 스발바르의 주권을 행사하는데 연구와 교육 부문이 계속해서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백서는 주로 스발바르에 대한 노르웨이의 관할권을 재확인하고 있다. 백서 자체는 지정학적 문제에 대해서는 가볍게 다루고 있지만, 문서상의 행동계획과 언어는 스발바르에 대한 더욱 강력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출처 : [1] 스발바르 백서(2023-2024)

[2] High North News, 2024년 6월 14일, Sovereignty, Governance, and Infrastructure: Analysis of Svalbard's White Paper 2023-2024

[3] High North News, 2024년 6월 19일, Researcher: "New Svalbard White Paper Affirms Norwegian Jurisdiction on Svalbard"

[4] The Maritime Executive, 2024년 9월 1일, New Interest in Norway's Svalbard from China and Others for Arctic Research



전문연구원 김 지 혜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불

아프리카의 불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 고조에 따른 주변국의 대응 동향

최근 중동 사태와 지난 1월 에티오피아가 분리 독립을 선언한 소말릴란드와 베르베라 항만의 이용에 관한 MOU 체결로 인해 촉발된 북동아프리카의 역내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⁴⁾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서 지부티는 에티오피아에게 독점적 항만 이용권을 제안하였으며, 소말리아는 새로운 해운지침을 발표하며, 주권 강화에 나섰다.

그림 7. 아프리카의 불 지역 내 주요 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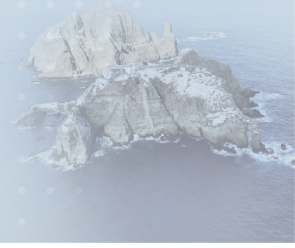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사진 출처: BBC

지부티, 에티오피아에게 독점적 항만 이용권 제안

바다 접근권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에티오피아가 소말릴란드와 항만접근권에 관한 MOU를 체결하면서 역내 갈등이 악화되자 지부티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분리 독립한 소말릴란드의 항만

4) 에티오피아-소말릴란드 MOU로 촉발된 역내 갈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국제해양정세리포트 제28호, '바다에 대한 접근권을 둘러싼 소말리아-에티오피아 갈등, 튀르키예가 중재'를 참고.



을 이용하는 대신 자국 타주라 항만을 에티오피아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했다.

1993년 에리트레아의 독립으로 내륙국이 된 에티오피아는 현재 국제 무역의 약 90%가 지부티의 주요 항만인 지부티 항만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타주라 항만은 1997년 개장했으며, 배후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에 자리하고 있다. 항만은 두 개의 접안 시설과 약 1,400피트의 접안 부두를 운영하고 있다.

지부티의 이러한 제안은 역내 갈등을 해소하면서도 소말릴란드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인 것으로 평가된다. 소말릴란드의 지부티 항만은 세계은행의 2023년도 컨테이너항만 성과 지수에서 전년도 26위에서 379위로 추락한 반면, 베르베라 항만은 전년도 144위에서 106위로 상승하는 등 베르베라 항만의 영향력은 이미 확인되고 있다. 특히, 지부티는 소말릴란드가 에티오피아와 MOU를 체결한 이후 소말릴란드의 베라베라 항만이 지부티 항만에 더욱 큰 도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자국의 해운산업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소말리아, 새로운 해운 지침 발표

지난 9월 소말리아가 자국 영해에서 오랜 문제가 되어 왔던 해적, 불법어업 등의 불법활동을 퇴치하고 주권과 해양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해운 지침을 발표했다. 소말리아는 아덴만과 홍해에 인접한 긴 연안을 보유하고 있지만, 오랜 내전과 역량 부족으로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예컨대, 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말리아 해역에서 성행하는 불법 어업은 소말리아에 매년 약 3억을 손실을 보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말리아 영해에 진입하거나 활동하는 모든 선박들은 소말리아 국기를 게양해야 하며, 소말리아 영해를 통과하는 선박은 소말리아 해양 규제 당국에 통보하고 항만해양교통부의 규제를 따라야 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에 새로 발표된 해운 지침이 최근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갈등에 대한 대응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와 소말릴란드가 베르베라 항만 이용에 대한 MOU를 체결함에 따라 에티오피아 국적 선박들은 베르베라 항만 이용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지침으로 소말리아로부터 분리 독립을 선언한 소말릴란드의 해역에 소말릴란드의 분리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소말리아의 새로운 해운지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초래



됐다. 소말리아는 앞선 MOU가 자국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으며, 튀르키예의 중재 하에 이 문제에 대해 에티오피아와 대화하고 있다.

그림 8. 베르베라 항만



사진 출처: Maritime Executive

출처 : [1] Maritime Executive, 2024년 9월 2일, Somalia Issues New Maritime Regulations to Manage Vessels in its Waters
[2] Maritime Executive, 2024년 9월 1일, Djibouti Offers Port to Ethiopia in Hopes of Easing Regional Tensions
[3] Mustaqbal Media, 2024년 9월 1일, Somalia Imposes New Directives on Ships Entering Its Waters to Bolster Maritime Security
[4] World Bank Group, 2024년, The Container Port Performance Index 2023



3개월 내 행사계획

2024년 하반기 국제해양법 아카데미 | 2024년 9월 4일 ~ 11월 27일 /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 강의 주제: 국제해양법과 현안 문제 강의(총 9강)
 - 참여 대상: 국제해양법에 관심 있는 모든 대학(원)생 및 해양법·정책 유관기관 실무자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동아대 글로벌재난안전연구센터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
- 주요 내용 (참가 신청: 2024.8.7.~8.25.)

2024 제47회 해양법 및 정책 연례회의 | 2024년 9월 17일 ~ 20일 / 페루 리마

- 주요 내용
- 해양법정책컨퍼런스(COLP)에서 '남태평양 및 라틴 아메리카의 해양 거버넌스'를 주제로 해양 거버넌스와 해양법의 새로운 발전, 현재 남태평양 지역의 과제와 기회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을 논의

대한국제법학회 독도세미나 | 2024년 9월 20일 / 고려대학교 CJ법학관 5층 최고위과정실

- 주요 내용
- 독도 영유권 관련 주요 법적 쟁점, 일본 학계의 「태정관지령」 연구 현황, 「울도군 절목」에 따른 울릉도 수세의 법적 의의

유엔총회 미래 정상회담(UNHQ) | 2024년 9월 22일 ~ 9월 23일 / 뉴욕

- 주요 내용
- 글로벌 디지털 협약과 미래 세대에 대한 선언(A/RES/79/1) 미래를 위한 협정(The Pact for the Future) 채택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6) | 2024년 10월 21일 ~ 11월 1일 / 콜롬비아 칼리

- 주요 내용
-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SI), 생물다양성 주류화,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책임과 배상(제14조 2항) 등에 관한 논의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자대회 | 2024년 10월 25일 / 숭실대학교 숭덕경상관 201호

- 주요 내용
- 미래 사회와 국제법의 과제